

##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박 영 신<sup>†</sup>                      김 의 철                      탁 수 연  
인하대 교육학과              인하대 경영학부              인하대 대학교육개발센터

이 연구의 목적은 이탈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심리 행동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253명)과, 일반계 고등학생(257명)을 표집하여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및 가출과 학업성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질적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고, 양적 질문지는 Bandura(1995)의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상대방 잘못에 두고,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 심정을 억울하다고 함으로써, 도덕적 이탈이 시사되었다.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로 학업을 지적한 경우가 적었으며, 가장 자신이 멋있다고 느낀 때가 없다고 함으로써 자기효능감도 낮았다. 또한 친구와 활동 내용 및 장소로 PC방/오락실을 많이 지적하였고,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일 또는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로서, 학업/진로문제에 대한 반응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가출을 유혹하는 환경에 많이 접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보여준다. 양적 분석을 위해 두 집단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도덕적 이탈 정도가 높았으며, 사회성 효능감이 높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낮았다. 또한 가출을 많이 했으며, 학업성취도는 낮았다. 판별분석 결과 가출정도와 사회성 효능감 및 도덕적 이탈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판별하고,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일반 청소년을 판별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보호관찰 청소년, 가출,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

<sup>†</sup>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E-mail : yspark@inha.ac.kr

## 현상: 도덕적으로 이탈된 청소년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다가 발각이 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된 청소년들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죄책감이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들킨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4b). 길을 가다보니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어서 잠시 탔을 뿐이고, 키를 훔쳐서 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었다. 오히려 부주의하게 키를 오토바이에 꽂은 채로 오토바이를 둔 오토바이 주인이 잘못이라는 책임전가를 하였다. 또는 남의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다닌 공범 친구 경우는 부모가 경찰에 와서 ‘손을 썼기 때문’에 빠져 나가고, ‘뺑’ 없고 돈 없는 자기만 이렇게 억울하게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마저 있었다. 예컨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찌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기준이 약화되어 있거나 극단적인 혼란에 빠져 있거나 심지어는 아예 상실되어 있었다.

즉심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탈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긍정적인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기 보다는, 남의 탓 등으로 돌림으로써 도덕적으로 잘못된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Bandura(1995)가 제작한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을 측정하는 도구의 하위 구성 개념을 검토해 보면, 심리학의 시각에서 도덕

적 이탈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도덕적 이탈은 완곡한 언어표현(euphemistic language, 예: 밍살스러운 애를 때림으로써 그 애가 잘못을 깨닫도록 한다), 비인간화(dehumanization, 예: 부드럽게 대해서 안 통하는 사람들은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 예: 내가 속한 집단의 명예를 위해서는 싸워도 괜찮다), 상대적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예: 심각한 불법 행동에 비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비난의 귀인(attribution of blame, 예: 학대받는 아이는 흔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다), 행동의 영향에 대한 왜곡(disregarding or distorting the consequences of action, 예: 아이들끼리 모욕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예: 여럿이서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중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책임 전이(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예: 친구가 강제로 시켜서 비행한 경우에, 그 아이를 탓할 수 없다)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을 포괄(Bandura, 1995)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면담 내용들(박영신, 김의철, 2004b)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러한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심리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심리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심리특성을 분석한 결과(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4)에 의

하면,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정도가 강하였고 사회성 효능감은 높았으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관계 효능감은 낮았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일반적인 신뢰의식이 약하였으며,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즉 부모, 형제/자매,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표집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동일한 맥락에서 다양한 일탈 청소년 집단들이 일반 청소년과 심리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비교했을 때(박영신, 김의철, 1998), 소년원생들이 더욱 외적통제신념이 높았고 노력귀인을 적게 하였다. 쉼터 및 교육청에 위탁된 청소년들과 일반 중 고등학생을 비교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a)도, 두 집단 사이에 심리 특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탁청소년이 일반 중 고등학생보다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높았으며 폭력대처 효능감은 높았으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초 중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가해집단, 폭력피해집단 및 폭력무경험집단으로 분류하여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b)에서도 차이가 밝혀졌다. 즉 폭력가해집단은 폭력무경험집단이나 폭력피해집단보다도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았으며, 폭력무경험집단이나 폭력피해집단은 도덕적 이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Park & Kim, 2001). 한편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Yang, Chung & Kim, 2003)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집단은 가해집단이나 일반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증 외로움이 강하였으며, 생활만족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호와 민미자(2002)는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별히 집단따돌림에 초점을 두고,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과 주도하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심리특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성격 특성 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집단 내 활동이 소극적인 반면, 집단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은 사교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집단이나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이탈 행동을 보이고, 내면적으로는 우울증이 있었다. 감성지능을 비교하였을 때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타인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 감성지능이 현저하게 낮았다. 김정민(2004)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폭력피해집단 내에서도 또래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관계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신체적이거나 언어적 피해를 당한 경우보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해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의 연구(Olweus, 1993)에서도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김영희, 박영신과 김의철(2004a)이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 집단이 심리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경우에, 일탈행동 무

경험집단이 학업성취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자기조절동기 효능감, 주위사람 기대 일치 효능감, 사회지향 성취동기가 더욱 높았다. 반면에 일탈행동 경험집단은 무경험집단보다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훨씬 높았다. 중학교 1학년을 분석한 결과도,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이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관계 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은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더 강하게 지각하였다.

집단별 비교는 아니지만 일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일탈행동이 심리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도 있다. 꺾금주,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탈행동은 도덕적 이탈 및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자기조절 효능감이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는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사소한 일탈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 모두,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 중에서 특히 자기조절 효능감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도시와 농촌의 중학생을 표집하여 심리 행동특성의 관계를 구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9)를 보면, 일탈행동과 학업성취도는 다양한 심리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심각한 일탈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취동기나 생활만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계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거나 성취동기가 높거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일탈행동은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포함하는 일탈 청소년들이 중 고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행동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인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거쳐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일탈행동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b)에 의하면, 도덕적 이탈은 폭력가해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또한 사회성 효능감은 학교처벌경험에 대해, 그리고 학교처벌경험은 심각한 일탈행동에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사회성 효능감이 높을수록 일탈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 줌으로써, 부정적인 심리특성이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행동들이 학업성취 추구 행동과는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있다. 강상진 전민정과 장지현(2005)이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문고와 실업고에서 공통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문제행동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문제행동을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청소년들이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낮고,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탈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일탈행동이나 학업성취행동의 요인구조가 질적으로 달랐다(Park & Kim, 2004). 예컨대 일탈행동은 폭력가해행동이나 학교처벌경험과 동일한 요인에, 학업성취행동은 학습시간과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따라서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 폭력가해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고, 선생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험도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폭력가해집단, 폭력피해집단 및 폭력무경험집단을 분류하여 그들의 행동특성에서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도, 폭력가해집단이 가장 학교 처벌경험이 많고, 그 다음으로 폭력피해집단, 폭력무경험집단의 순서(박영신, 김의철, 2001b)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탈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의 행동 특성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탈 청소년 중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행동 특성에서 차이가 크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들이 있다.  $\chi^2$  검증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은 가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호관찰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 경우는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9.1%나 된 반면에, 일반 고등학생은 2.7%라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 중에서도 재범인 경우는 가출 경험이 60.5%로 과반수가 넘는 반면에, 초범인 경우는 34.8%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일반 고등학생보다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훨씬 가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중에서도 재범 이상 누적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일수록 가출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탈행동은 반복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경로분석 결과(Kim & Bandura, *in press*)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일탈행동은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중학교 1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은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중학교 3학년에서의 일탈행동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의 일탈행동에 대해, 모두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탈 청소년들이 일탈적인 행동들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 연구의 목적과 내용

한상철(2001)은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의 원인을 개인 내적 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일탈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있다. 환경 변인 중에서도 특별히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의 맥락에서 일탈행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누적된 경험과학적 연구의 결과들이 개관(박영신, 김의철, 2004c)된 바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의 영향, 부모의 자녀 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와 압력,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경험과 같은 세 측면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친구관계의 경우, 친구 사회적 지원의 증가와 부모나 교사 사회적 지원의 감소, 일탈행동 촉진자로서 친구와 관련된 생활 환경의 개선, 일탈 청소년 하위집단별 다양한 친구관계 유형과 같은 세 측면이 논의되었다. 한편 교사학생관계

와 관련하여서는, 교사와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탈 청소년,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의 회복, 처벌의 효과에 대한 숙고와 같은 세 가지 논의점이 다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는 사회환경적 요소보다는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영신과 김의철(2004c)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 즉 일탈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일탈 청소년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과 일반 고등학생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두 청소년 집단별로 심리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청소년 집단별로 행동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다. 여기에서 심리특성으로는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변인 두 가지를, 그리고 행동특성으로는 가출과 학업성취 변인 두 가지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질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과 양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두 청소년 집단 간의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심리 행동특성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나아가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집단별 심리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다. 둘째,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다. 셋째, 청소년 집단별 심리특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한다. 넷째,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심리특성과 행동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판별에 도움이 되는 변인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집단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에서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총 601명 이었다(보호관찰 청소년 324명, 일반 고등학생 277명). 보호관찰 청소년의 표집은 범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즉심을 받고 인천보호관찰소로 위탁되어 개시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로 하였다. 일반 청소년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2개 학교를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표집하여, 그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로 하였다.

표집대상 중에서 응답을 빠뜨린 문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응답의 성실성을 믿을 수 없는 답지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510명이었다. 그 중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이 253명이었고 일반 청소년이 257명이었다. 각 집단에는 남녀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실제로 남자가 대부분이고 여자는 일부이기 때문에, 분석대상도 여자 수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청소년도 여자의 표집을 남자보다 적게 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남	374	196	178
녀	136	57	79
계	510	253	257

청소년의 개인특성으로서는 연령과 평균 성적을 검토하였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15.84세였으며 일반 청소년은 16.75세로서, 전체 연령 평균은 16세였다. 응답자의 평균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은 중하(43.2%)가 과반수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26.3%) 하(17.4%) 중상(10.2%) 상(2.5%)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 중간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 집단은 중상(34.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27.2%) 중하(20.2%) 상(11.7%) 하(6.2%)의 순서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성적을 중간보다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환경 변인에 대한 검토 결과는, 친부모 여부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은 81.0%였으나, 일반 청소년은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편부(7.1%)나 편모(7.5%)인 경우가 많았으며, 계부(2.4%)나 계모(1.6%)인 경우도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사항에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보호관찰 청소년은 79.4%이고 일반 청소년은 94.1%로서, 보호관찰 청소년 경우는 어머니와 동거(10.7%)한다든가 아버지와 동거(7.5%)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나 어머니의 학력 모두 고졸이 가장 많

다는 점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이 일치하였으나, 일반 청소년 부모가 상대적으로 대졸이 더욱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정경제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상-0.4% 중상-11.6% 중-42.4% 중하-33.6% 하-12.0%)이 일반 청소년(상-0.4%, 중상-13.3%, 중-57.5%, 중하-22.0%, 하-5.1%)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여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측정도구

사용된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를 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특성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도덕적 이탈은 Bandura (1995)가 제작한 도덕적 이탈 질문지 중에서 8개 문항을 다루었다. Cronbach alpha 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79로 나왔다. 자기효능감도 Bandura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3개 즉 자기주장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을 포함하였다. 이외에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관계 효능감과 사회성 효능감 변인도 삽입되었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73~.83으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 모두 각각 8개씩의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가출과 학업성취 변인을 다루었다. 가출 경험은 (1) 무경험, (2) 1회, (3) 2회, (4) 3회 중에서 선택하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적은 현재 평균 성적에 대해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중에서 응답자

표 2.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번호	전체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도덕적 이탈	-	1 2 3 4 5 6 7 8	.76	.79	.75
자기효능감	관계 효능감	1 6 11 16 21 26	.73	.75	.73
	자기주장 효능감	2 7 12 17 22 27	.77	.73	.81
	사회성 효능감	3 8 13 18 23 28	.83	.78	.87
	어려움극복 효능감	4 9 14 19 24 29	.80	.74	.85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5 10 15 20 25 30	.76	.77	.75

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 변인은 분석 과정에서 역산문항으로 처리되었다.

#### 실시 및 분석방법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개시교육의 유무가 결정되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개시교육이 있을 때마다 한 번에 최소 몇 명에서 최고 수십 명으로 구성된 개시교육 참여자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개시교육이 끝나자마자 개시교육 장소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질문지를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양적 질문지 실시가 끝나면 연구자와 석 박사과정 연구팀들이 보호관찰 청소년 3~5명 정도씩 모아 집단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 면접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에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면접지에 모두 기록되었으며, 기록된 내용들은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분석을 위해 모든 응답들을 유사한 반응 내용끼리 묶고, 그러한 내용을 대표하는 명칭을 붙여서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 유사한 항목들끼리 모아서 범주를 구성하고, 구성된 범주의 명칭

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범주와 항목으로 구성된 코딩 분류체계를 제작하고, 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코딩 분류체계가 마련되었다. 응답자들의 질적인 반응들은, 이와 같이 제작된 코딩 분류체계에 따라 모두 양적인 자료로 환원되어 재입력 되었다. 입력된 반응 자료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통계처리 되었다.

양적 질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입력하고 통계처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차이에 주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성별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또한 두 집단을 판별하는 대표적인 변인들을 찾기 위해 판별분석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두 집단의 심리 행동특성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결 과

### 청소년 집단별 심리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도덕적 이탈

표 3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런



표 3. 문제행동을 하게 된 동기

범행 동기	집단	전체 (%)	보호관찰 경력별	
			초범	재범이상
1. 우발적인 실수		73 (30.8)	61 (30.8)	12 (30.0)
2. 호기심		62 (26.2)	52 (26.4)	10 (25.0)
① 하고 싶어서		49 (20.7)	42 (21.3)	7 (17.5)
② 습관적으로		13 ( 5.5)	10 ( 5.1)	3 ( 7.5)
3. 금전 부족		28 (11.8)	23 (11.7)	5 (12.5)
① 돈이 필요해서		26 (11.0)	21 (10.7)	5 (12.5)
② 유흥비 마련		2 ( .8)	2 ( 1.0)	-
4. 상대방 잘못		21 ( 8.9)	20 (10.1)	1 ( 2.5)
① 피해자 탓		19 ( 8.0)	18 ( 9.1)	1 ( 2.5)
② 상대방이 먼저 시비		2 ( .8)	2 ( 1.0)	-
5. 놀다가 보니		18 ( 7.6)	12 ( 6.1)	6 (15.0)
① 놀다가		13 ( 5.5)	10 ( 5.1)	3 ( 7.5)
② 술 먹고 놀다가		5 ( 2.1)	2 ( 1.0)	3 ( 7.5)
6. 운이 없어서		14 ( 5.9)	12 ( 6.1)	2 ( 5.0)
7. 그냥		13 ( 5.5)	11 ( 5.6)	2 ( 5.0)
① 그냥		7 ( 3.0)	5 ( 2.5)	2 ( 5.0)
② 잘 모름		6 ( 2.5)	6 ( 3.0)	-
8. 기타		8 ( 3.4)	6 ( 3.0)	2 ( 5.0)
계		237 (100.0)	197 (100.0)	40 (100.0)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 결과를 보면 ‘우발적인 실수’와 ‘호기심’이 30% 내외의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금전 부족’은 10% 이상의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상대방 잘못’ ‘놀다가 보니’ ‘운이 없어서’ ‘그냥’과 같은 반응들이 부각되었다.

보호관찰 경력별로 분석한 결과도, 초범이나 재범이상 집단 모두 ‘우발적인 실수’ ‘호기심’ ‘금전 부족’과 같은 반응들이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단 초범 집단은 ‘상대방 잘못’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재범이상 집단은 ‘놀다가 보니’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한 차이가 있었다.

문제행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분석 결과, ‘상대방 잘못’ ‘운이 없어서’ ‘그냥’과 같은 응답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이 자기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었다든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피해의식, 또는 별 생각없이 그냥 일탈행동에 참여했다고 함으로써, 극단적으로 도덕성이 상실된 상

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인 반응경향을 보면, ‘후회 된다’가 30% 이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나타났고, ‘억울하다’와 ‘답답하다’도 각각 20% 내외의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이 외에 ‘두렵다’ ‘답답하다’ ‘잘 해야겠다’와 같은 반응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보호관찰 받을 나쁜 행동을 내가 왜 했는가’하는 후회와 더 나아가서 반성 및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받게 된 것이 황당하고 짜증나는 등 억울하다는 감정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억울함 외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답답하다는 반응들이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보호관찰 경력 집단별 보호관찰소에 왔을

표 4.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의 심정

심정	집단	전체(%)	보호관찰 경력별	
			초범	재범이상
1. 후회 된다		66 (34.2)	59 (37.3)	7 (20.0)
① 후회 된다		37 (19.2)	30 (19.0)	7 (20.0)
② 반성 중이다		29 (15.0)	29 (18.4)	-
2. 억울하다		43 (22.3)	33 (20.9)	10 (28.6)
① 억울하다		29 (15.0)	19 (12.0)	10 (25.6)
② 황당하다		11 ( 5.7)	11 ( 7.0)	-
③ 짜증난다		3 ( 1.6)	3 ( 1.9)	-
3. 답답하다		37 (19.2)	28 (17.7)	9 (25.7)
① 잘 모르겠다		20 (10.4)	15 ( 9.5)	5 (14.8)
② 답답하다		17 ( 8.8)	13 ( 8.2)	4 (11.4)
4. 두렵다		18 ( 9.3)	16 (10.1)	2 ( 5.7)
① 두렵다		10 ( 5.2)	8 ( 5.1)	2 ( 5.7)
② 떨린다		8 ( 4.1)	8 ( 5.1)	-
5. 답답하다		16 ( 8.3)	11 ( 7.0)	5 (14.3)
6. 잘 해야겠다		7 ( 3.6)	6 ( 3.8)	1 ( 2.9)
① 잘 해야겠다		5 ( 2.6)	4 ( 2.5)	1 ( 2.9)
② 다행이다		2 ( 1.0)	2 ( 1.3)	-
7. 기타		6 ( 3.1)	5 ( 3.2)	1 ( 2.9)
① 좋다		5 ( 2.6)	4 ( 2.5)	1 ( 2.9)
② 기타		1 ( 0.5)	1 ( 0.6)	-
계		193 (100.0)	158 (100.0)	35 (100.0)

때의 심정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초범의 경우에 '후회 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는데 거의 40%에 가까웠다. 그러나 재범

이상인 경우는 '억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0%에 가까웠으며, '담담하다'는 반응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5.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

자신감 집단	전체 (%)	청소년 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1. 운동	110 (22.9)	80 (32.7)	30 (12.8)
① 운동	81 (16.9)	66 (26.9)	15 ( 6.4)
② 축구	13 ( 2.7)	11 ( 4.5)	2 ( .9)
③ 기타	9 ( 1.9)	2 ( .8)	7 ( 3.0)
④ 농구	7 ( 1.5)	1 ( .4)	6 ( 2.6)
2. 컴퓨터 게임	93 (19.4)	53 (21.6)	40 (17.0)
① 컴퓨터 게임	48 (10.0)	31 (12.7)	17 ( 7.2)
② 컴퓨터 통신	42 ( 8.8)	20 ( 8.2)	22 ( 9.4)
③ 컴퓨터 조립	3 ( .6)	2 ( .8)	1 ( .4)
3. 없다	87 (18.1)	46 (18.8)	41 (17.4)
4. 취미생활	51 (10.6)	17 ( 6.9)	34 (14.5)
① 책읽기(독서)	19 ( 4.0)	4 ( 1.6)	15 ( 6.4)
② 만들기	13 ( 2.7)	4 ( 1.6)	9 ( 3.8)
③ 그림 그리기	9 ( 1.9)	4 ( 1.6)	5 ( 2.1)
④ 악기 연주	6 ( 1.3)	4 ( 1.6)	2 ( .9)
⑤ 만화책 보기	4 ( .8)	1 ( .4)	3 ( 1.3)
5. 친구와 놀기	48 (10.0)	25 (10.2)	23 ( 9.8)
① 노래/춤	27 ( 5.6)	14 ( 5.7)	13 ( 5.5)
② 친구와 놀기	18 ( 3.8)	8 ( 3.3)	10 ( 4.3)
③ 친구와 돌아다니기	3 ( .6)	3 ( 1.2)	-
6. 학업	44 ( 9.2)	13 ( 5.3)	31 (13.2)
① 공부 열심히 하기	33 ( 6.9)	10 ( 4.1)	23 ( 9.8)
② 글쓰기	8 ( 1.7)	-	8 ( 3.4)
③ 자격증	3 ( .6)	3 ( 1.2)	-
7. 잘 모르겠다	31 ( 6.5)	3 ( 1.2)	28 (11.9)
8. 기타	12 ( 2.5)	4 ( 1.6)	8 ( 3.4)
① 다 잘 한다	10 ( 2.1)	2 ( .8)	8 ( 3.4)
② 기타	2 ( .4)	2 ( .8)	-
계	480 (100.0)	245 (100.0)	235 (100.0)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의 심정이 보호관찰 경력별로 매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범 집단은 후회하고 반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재범이상 집단에서는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심정이 우선되었다. 그러므로 재범이상 집단이 심리적으로 훨씬 도덕적인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 자기효능감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5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 ‘컴퓨터 게임’ ‘없다’가 20% 내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 ‘친구와 놀기’ ‘학업’이 1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매우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는 ‘운동’에 대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및 ‘없다’는 반응이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친구와 놀기’로 나타났으며, 취미생활과 ‘학업’이라는 반응은 5% 내외로 제시된 응답 중에 가장 낮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일반 청소년들은 ‘없다’ ‘컴퓨터 게임’ ‘취미생활’ ‘학업’ ‘운동’의 순서로 반응하였으나, 모두 10%~20% 사이의 반응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반면에, 일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취미생활’이나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학업과 관련된 반응들은 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와

같이 노력이나 성실성과 관련된 응답들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 등을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살면서, 자기 자신이 멋있고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경우인지’를 질문한 결과의 분석이 표 6이다. 표 6에서 전체집단의 반응 경향성을 살펴보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성취’가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없다’가 20% 이상의 반응률을 보였으며, 이외에 ‘칭찬받았을 때’ ‘남을 도와줌’ ‘학업성취’ ‘멋있는 외모’가 10% 내외의 반응들로 구성되었다.

하위집단별로 보면 현저한 집단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 경우에 자신이 가장 멋있다고 느낀 때가 ‘없다’는 반응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성취’가 30%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서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성취’가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칭찬받았을 때’ ‘학업성취’ ‘남을 도와줌’ ‘우정을 느낄 때’와 같은 반응들도 모두 10% 내외의 유사한 비율들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느낄 때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으며, 이에 비해 일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와 ‘학업성취’를 하였을 때 자신을 멋있게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집단 사이에 자기자신에 대한 효능적 인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가장 자신이 멋있다고 느낀 때

자신의 멋	집단	전체 (%)	청소년 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1. 하고싶은 일에 대한 성취		115 (31.3)	66 (31.4)	49 (31.0)
① 게임에서 이겼을 때		48 (13.0)	27 (12.9)	21 (13.3)
② 자격증		25 ( 6.8)	17 ( 8.1)	8 ( 5.1)
③ 하고싶은 일을 성취		14 ( 3.8)	12 ( 5.7)	2 ( 1.3)
④ 말하기/글/그림		12 ( 3.3)	-	12 ( 7.6)
⑤ 어려운 일을 해냄		11 ( 3.0)	9 ( 4.3)	2 ( 1.3)
⑥ 운동할 때		5 ( 1.4)	1 ( .5)	4 ( 2.5)
2. 없다		85 (23.1)	77 (36.7)	8 ( 5.1)
3. 칭찬받았을 때		43 (11.7)	12 ( 5.7)	31 (19.6)
① 인정받았을 때		32 ( 8.7)	6 ( 2.9)	26 (16.5)
② 칭찬받았을 때		11 ( 3.0)	6 ( 2.9)	5 ( 3.2)
4. 남을 도와줌		41 (11.1)	22 (10.5)	19 (12.0)
① 남을 도와준 일		16 ( 4.3)	9 ( 4.3)	7 ( 4.4)
② 봉사 활동할 때		12 ( 3.3)	6 ( 2.9)	6 ( 3.8)
③ 착한 일을 했을 때		7 ( 1.9)	4 ( 1.9)	3 ( 1.9)
④ 불쌍한 사람을 도와줌		6 ( 1.6)	3 ( 1.4)	3 ( 1.9)
5. 학업성취		27 ( 7.3)	7 ( 3.3)	20 (12.7)
① 성적향상		14 ( 3.8)	1 ( .5)	13 ( 8.2)
② 상 받은 일		11 ( 3.0)	5 ( 2.4)	6 ( 3.8)
③ 학교생활		2 ( .5)	1 ( .5)	1 ( .6)
6. 멋있는 외모		22 ( 6.0)	12 ( 5.7)	10 ( 6.3)
7. 우정을 느낄 때		16 ( 4.3)	3 ( 1.4)	13 ( 8.2)
8. 효도		6 ( 1.6)	4 ( 1.9)	2 ( 1.3)
① 집안일 돕기		3 ( .8)	2 ( 1.0)	1 ( .6)
②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		3 ( .8)	2 ( 1.0)	1 ( .6)
9. 기타		15 ( 4.1)	7 ( 3.3)	8 ( 5.1)
① 항상 멋있다		11 ( 3.0)	5 ( 2.4)	6 ( 3.8)
② 기타		4 ( 1.1)	2 ( 1.0)	2 ( 1.3)
계		368 (100.0)	210 (100.0)	158 (100.0)

##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가출

청소년 집단별로 행동특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7에서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PC방/ 오락실’ ‘그냥 돌아 다닌다’ 각각에 대해 10명 중 2명 이상으로 반응 빈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흥가’ ‘학교에서’와 같은 반응들이 10%~20% 사이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하위집단별로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은 ‘PC방/ 오락실’이라는 반응을 4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들은 ‘그냥 돌아 다닌다’와 ‘학교에서’가 각각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유흥가’ ‘PC방/ 오락실’ ‘집에서’가 모두 10%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일반 청소년들은 그냥 돌아다니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야기 하고 운동하고 같이 논다는 반응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친구와 활동하는 장소 및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PC방이나 오락실과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과반수나 되나, 일반 청소년들은 그냥 돌아다니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지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이 두 집단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내용 및 활동 장소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 경우에 PC방이나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음으로써, 여러 가지 일탈행동을 모방할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 학업성취

‘1년 이내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반응경향을 보면, ‘학업/ 진로결정’이라는 반응을 60%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이 ‘자격증 취득’ ‘취미생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성취 ‘학교생활 적응’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 진로결정’ 못지않게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각각 30% 내외의 반응률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 진로결정’에 대해 80% 이상의 압도적인 반응률을 보였다. 이외에 ‘취미생활’이라든가 ‘친구관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같은 반응들이 있었지만, 모두 5% 이내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반응이 1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 반면에 일반 청소년들은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일반 청소년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로서 대학교에 진학한다든가 또는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학업과 관련된 진로를 결정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러한 학업적인 관심에 못지않게 자격증 취득을 통해 앞으로 직장에 취업하는 것과 관련된 관심과 목표가 강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목표를 추구하는 비율이 낮은 동시에,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

표 7. 친구와 활동 내용 및 장소

친구와 활동 장소	집단	전체 (%)	청소년 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1. PC방/오락실		130 (26.2)	103 (41.4)	27 (10.9)
① PC방		89 (17.9)	72 (28.9)	17 ( 6.9)
② 오락실		26 ( 5.2)	21 ( 8.4)	5 ( 2.0)
③ 게임 한다		15 ( 3.0)	10 ( 4.0)	5 ( 2.0)
2. 그냥 돌아다닌다.		103 (20.7)	46 (18.5)	57 (23.0)
① 같이 논다(공원)		40 ( 8.0)	21 ( 8.4)	19 ( 7.7)
② 그냥 돌아다님		41 ( 8.2)	20 ( 8.0)	21 ( 8.5)
③ 같이 먹고 돌아다님		17 ( 3.4)	-	17 ( 6.9)
④ 그때마다 다르다		5 ( 1.0)	5 ( 2.0)	-
3. 유흥가		88 (17.7)	48 (19.3)	40 (16.1)
① 노래방		59 (11.9)	29 (11.6)	30 (12.4)
② 당구장		21 ( 3.8)	13 ( 5.2)	6 ( 2.4)
③ 호프집		8 ( 1.6)	6 ( 2.4)	2 ( .8)
④ 극장		2 ( .4)	-	2 ( .8)
4. 학교에서		75 (15.1)	19 ( 7.6)	56 (22.6)
① 이야기 한다		23 ( 4.6)	6 ( 2.4)	17 ( 6.9)
② 논다		19 ( 3.8)	3 ( 1.2)	16 ( 6.5)
③ 축구(운동) 한다		19 ( 3.8)	9 ( 3.6)	10 ( 4.0)
④ 같이 다닌다		14 ( 2.8)	1 ( .4)	13 ( 5.2)
5. 집에서		37 ( 7.4)	12 ( 4.8)	25 (10.1)
① 논다		23 ( 4.6)	9 ( 3.6)	14 ( 5.6)
② TV 본다		8 ( 1.6)	2 ( .8)	6 ( 2.4)
③ 이야기 한다		6 ( 1.2)	1 ( .4)	5 ( 2.0)
6. 친구 집에서		29 ( 5.8)	12 ( 4.8)	17 ( 6.9)
① 논다		25 ( 5.0)	12 ( 4.8)	13 ( 5.2)
② 이야기 한다		4 ( .8)	-	4 ( 1.6)
7. 같이 아르바이트 한다		19 ( 3.8)	4 ( 1.6)	15 ( 6.0)
8. 기타		15 ( 3.0)	5 ( 2.0)	10 ( 4.0)
① 별다른 것은 없다		11 ( 2.2)	1 ( .4)	10 ( 4.0)
② 기타		4 ( .8)	4 ( 1.6)	-
계		497 (100.0)	249 (100.0)	248 (100.0)

표 8.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일

1년 내 희망	집단	전체 (%)	청소년 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1. 학업 진로결정		288 (58.2)	87 (34.1)	201 (83.8)
① 고/대학교 진학		136 (26.8)	40 (15.7)	96 (40.0)
② 성적 향상		104 (20.5)	23 (9.0)	81 (33.8)
③ 공부 열심히 하기		48 (9.5)	24 (9.4)	24 (10.0)
2. 자격증 취득		83 (16.8)	75 (29.4)	8 (3.3)
3. 취미생활		30 (6.1)	19 (7.5)	11 (4.6)
① 운동		15 (3.0)	12 (4.7)	3 (1.3)
② 컴퓨터 게임		8 (1.6)	6 (2.4)	2 (.8)
③ 음악/악기 연주		4 (.8)	1 (.4)	3 (1.3)
④ 독서/글쓰기		3 (.6)	-	3 (1.2)
4. 하고싶은 일에 대한 성취		28 (5.7)	22 (8.6)	6 (2.5)
① 성공		19 (3.8)	17 (6.7)	2 (.8)
② 원하는 것 하기		9 (1.8)	5 (2.0)	4 (1.6)
5. 학교생활 적응		25 (5.1)	23 (9.0)	2 (.8)
① 복학		16 (3.2)	16 (6.3)	-
② 학교생활 적응		9 (1.8)	7 (2.7)	2 (.8)
6. 특별한 것이 없다		19 (3.8)	17 (6.5)	2 (.8)
7. 친구관계		11 (2.2)	3 (1.2)	8 (3.3)
① 좋은 친구 만들기		6 (1.2)	1 (.4)	5 (2.1)
② 이성 친구 사귀기		5 (1.0)	2 (.8)	3 (1.3)
8. 가족을 위한 일		6 (1.2)	4 (1.6)	2 (.8)
① 효도		3 (.6)	2 (.8)	1 (.4)
② 원만한 가정생활		3 (.6)	2 (.8)	1 (.4)
9. 삶의 태도		5 (1.0)	5 (2.0)	-
① 진실된 삶		3 (.6)	3 (1.2)	-
② 착하게 사는 것		2 (.4)	2 (.8)	-
계		495 (100.0)	255 (100.0)	240 (100.0)

을 알 수 있었다.

‘요즘에 가장 신경이 쓰이고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제시된 바처럼, 전반적으로 ‘학업/진로문제’가 반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호관찰 잘 받는 것’ 없음, 친구 문제’가 10%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가족



표 9.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신경 쓰는 문제	집단	전체 (%)	청소년 집단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1. 학업/진로문제		271 (56.8)	78 (31.7)	193 (83.5)
① 학교성적		106 (22.2)	20 ( 8.1)	86 (37.2)
② 진학문제		90 (18.9)	13 ( 5.3)	77 (33.3)
③ 나의미래		30 ( 6.3)	20 ( 8.1)	10 ( 4.3)
④ 진로/학과선택		25 ( 5.2)	6 ( 2.4)	19 ( 8.2)
⑤ 부적응/복학		20 ( 4.2)	19 ( 7.7)	1 ( .4)
2. 보호관찰 잘 받는 것		67 (14.0)	67 (27.2)	-
3. 없음		51 (10.7)	46 (18.7)	5 ( 2.2)
4. 친구문제		39 ( 8.2)	17 ( 6.9)	22 ( 9.5)
① 이성 친구		25 ( 5.2)	8 ( 3.3)	17 ( 7.4)
② 친구 문제		14 ( 2.9)	9 ( 3.7)	5 ( 2.2)
5. 가족문제		21 ( 4.4)	17 ( 6.9)	4 ( 1.7)
① 가정생활		10 ( 2.1)	7 ( 2.8)	3 ( 1.3)
② 가족관계		5 ( 1.0)	5 ( 2.0)	-
③ 부모님과의 갈등		4 ( .8)	3 ( 1.2)	1 ( .4)
④ 가정경제		2 ( .4)	2 ( .8)	-
6. 자기자신의 문제		17 ( 3.6)	14 ( 6.5)	3 ( 1.3)
① 성격문제		7 ( 1.5)	7 ( 2.8)	-
② 컴퓨터 게임		6 ( 1.3)	6 ( 2.4)	-
③ 외모		4 ( .8)	1 ( .4)	3 ( 1.3)
7. 경제문제		8 ( 1.7)	4 ( 1.6)	4 ( 1.7)
① 경제적 문제		5 ( 1.0)	1 ( .4)	4 ( 1.7)
② 아르바이트		3 ( .6)	3 ( 1.2)	-
8. 기타		1 ( .2)	1 ( .4)	-
계		477 (100.0)	246 (100.0)	231 (100.0)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진로문제'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보호관찰 잘 받는 것'이 각각 30% 내외로서 나타남으로써,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큰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청소년 경우에도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10명 중에 8명~9명 정도가 '학업/진로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학업과 관련하여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서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반응은 '친구문제'로서 9.5%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들의 대부분과 심지어 보호관찰 청소년들도 많은 경우 학업이나 진로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학업 및 진로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문제도 두 청소년 집단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확인되었다.

#### 청소년 집단별 심리특성에 대한 양적 분석

##### 도덕적 이탈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별로 심리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심리특성으로서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심리특성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를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표 11에서 도덕적 이탈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집단별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공변인인 성별에 따라

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집단별 도덕적 이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도덕적으로 더욱 이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기효능감

청소년 집단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다섯 개의 하위변인들 중에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사회성 효능감은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자기주장 효능감과 관계 효능감 및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경우는 집단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공변인인 성별에 따라서는 어려움극복 효능감 ( $p < .001$ )과 자기주장 효능감( $p < .05$ )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 10에서 집단간에 자기효능감의 평균 차이를 보면,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일반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높고, 사회성 효능감은 이와 반대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심리적 역

표 10. 청소년 집단별 심리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특성	하위변인	보호관찰 청소년 M (SD)	일반 청소년 M (SD)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	2.10 (.47)	1.87 (.42)
	자기조절학습	2.44 (.57)	2.69 (.52)
	자기주장	2.93 (.54)	2.91 (.51)
자기효능감	사회성	3.08 (.53)	2.85 (.59)
	관계	3.08 (.50)	3.12 (.47)
	어려움극복	2.82 (.53)	2.87 (.60)

표 11. 청소년 집단별 심리특성의 차이 공변량분석

변인		변산원	SS	df	MS	F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	공변인(성별)	2.62	1	2.62	13.53 ***
		집단간	5.83	1	5.83	30.15 ***
		집단내	98.16	507	.19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공변인(성별)	.04	1	.04	.02
		집단간	7.72	1	7.73	26.11 ***
		집단내	149.04	504	.29	
	자기주장 효능감	공변인(성별)	2.74	1	2.74	10.13 **
		집단간	.01	1	.01	.03
		집단내	136.49	505	.27	
	사회성 효능감	공변인(성별)	.01	1	.01	.01
		집단간	6.52	1	6.53	20.37 ***
		집단내	161.68	505	.32	
	관계 효능감	공변인(성별)	.66	1	.66	2.81
		집단간	.30	1	.30	1.27
		집단내	118.58	503	.23	
	어려움극복 효능감	공변인(성별)	8.28	1	8.28	27.48 ***
		집단간	.71	1	.71	2.35
		집단내	152.18	505	.30	

\*\*  $p < .01$ , \*\*\*  $p < .001$

동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사회성 효능감은 더 높으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사회성 효능감과 동시에 관계 효능감이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다섯 개의 하위변인 중에서 관계 효능감이 현저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이든 일반 청소년이든 두 집단 모두 자기효능

감의 하위변인들 중에 높은 관계 효능감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에 대한 양적 분석

##### 가출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행동특성으로는 청소년의 가출과 학업성취라는 두 변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심리특성에서의 차이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을

표 12.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특성	보호관찰 청소년		일반 청소년	
	M	(SD)	M	(SD)
가출	1.76	(1.09)	1.03	(.16)
학업 성취도	2.44	(.97)	3.25	(1.13)

공변인으로 간주하였다.

표 13의 공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 사이에 가출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변인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12에서 두 집단간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출을 더욱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학업성취

표 13에서 청소년 집단별로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가출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별 공변인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12에서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일반 청소년들이 더욱 높은 평균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는 일반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 심리 행동특성간의 상호관계

심리특성으로서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행동특성으로서 가출과 학업성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덕적 이탈 변인에 초점을 두고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덕적 이탈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두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및 관계 효능감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도덕적 이탈과 가출은 정적인 관계를, 학업성취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이탈된 청소년들이 가출을 더 많이 하며,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나 관계 효능감은 낮으며, 학업성취 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하위변인들간에 높은 정적 관

표 13. 청소년 집단별 행동특성의 차이 공변량분석

변인	변산원	SS	df	MS	F
가출	공변인 (성별)	1.53	1	1.53	2.65
	집단간	66.66	1	66.66	115.41 ***
	집단내	282.45	489	.57	
학업성취	공변인 (성별)	.04	1	.04	.03
	집단간	93.49	1	93.49	86.11 ***
	집단내	531.96	490	1.08	

\*\*\*  $p < .001$

표 14.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분석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도덕적 이탈							
②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16***						
③ 자기주장 효능감	-.09*	.34***					
④ 사회성 효능감	-.05	.23***	.57***				
⑤ 관계 효능감	-.16***	.43***	.43***	.44***			
⑥ 어려움극복 효능감	-.09*	.45***	.57***	.50***	.43***		
⑦ 가출	.15***	-.18***	-.04	.04	-.08	-.08	
⑧ 학업성취	-.10*	.40***	.04	-.02	.13**	.16***	-.26***

\*  $p < .05$ , \*\*  $p < .01$ , \*\*\*  $p < .001$

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은 다른 하위변인들간의 관계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하위변인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가출과 부적인 상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학업성취와는 매우 높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적이 좋으며, 반면에 가출은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나, 가출 변인에 초점을 두고 보면, 도덕적 이탈과는 정적 관계를,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이 눈에 띈다. 그러므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도덕적으로는 이탈되어 있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낮은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 변인의 경우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단순 상관계수는 정적 관계로서 매우 현저하며, 가출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도덕적 이탈과 비록 상관의 정도는 약하나 부

적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일수록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매우 높은 학생들인데, 도덕적으로 이탈된 정도는 약하며, 특별히 가출하는 경향은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판별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특성 변인과 행동특성 변인들에 의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어느 정도 판별되며, 각 변인들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하였다. 표 15를 보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 행동특성 변인들을 기초로 만든 판별함수가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분류하는 정확률이 계산되어 있다. 즉 이러한 변인들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중에서 약 7명이, 일반 청소년은 10명 중에서 약 8명이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분류 정확률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들의 표준판별화계수의 유의도를 보

표 15.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판별분석

판별변인		표준판별화계수		
심리특성	도덕적 이탈	.339 ***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140 ***		
	자기주장 효능감	-.099		
	사회성 효능감	.502 ***		
	관계 효능감	-.004		
	어려움극복 효능감	-.063		
행동특성	가출	.636 ***		
	학업성취도	-.462 ***		
정준상관계수		.597 ***		

예측변량 분류정확률 (%)	집단	분류정확률 (%)		계
		일반	보호	
		일반청소년	201(79.4)	52(20.6)
	보호청소년	70(32.1)	148(67.9)	218(100.0)

\*\*\*  $p < .001$ 

면,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및 학업성취도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사회성 효능감이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중에서 표준판별화계수의 값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가출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성 효능감, 학업성취도, 도덕적 이탈,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서로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판별분석에서는 일반 청소년을 1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2로 부호화하였다. 그런데 표 15에서 표준판별화계수의 부호를 보면 가출, 사회성 효능감, 도덕적 이탈이 정적인 방향을,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부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가출이나 사회성 효능감 및 도덕적 이탈이 보호관찰 청소년을 분류하고, 학업성취도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일반 청소년을 분류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가출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가출 정도만큼 설명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성 효능감이 높거나 도덕적 이탈 정도가 높은 청소년도 보호관찰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학업성적이 높으면 보호관찰 청소년이 되기보다는 학교를 정상으로 다니고 있는 일반 청소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인 설명력이 약하기는 하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은 경우도 일반 청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의미있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보호

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을 현저하게 많이 하고 사회성 효능감 및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높으며, 일반 청소년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논의 및 결론

### 요약: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1a; Park & Kim, 1998)에 토대한 이 연구를 시작할 때의 잠정적인 가정, 즉 일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은 환경의 면에서나 이로부터 비롯된 심리 행동특성의 면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즉 이 연구에서의 판별분석에 의하면 가출을 많이 하고 사회성 효능감이 높으며 도덕적 이탈을 많이 할수록,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반면에 학업성적이 높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물론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 사이의 심리 행동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에서도 동일한 반응 경향을 나타내었다.

질적 분석 결과도 양적 분석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뒷받침해 주었다. 즉 문제행동을 하게 된 동기로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운이 없어서'라는 응답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실과,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의 심정을 질문하였을 때 '억울하다'든가 '담담하다'는 일련의 반응들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Tak, Park, & Kim, 2004)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가장 자신있게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공부 열심히 하기'와 같은 항목들을 대표하는 '학업'을 지적한 경우가 일반 청소년들보다 적었으나, '운동'이나 '컴퓨터 게임'을 훨씬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효능감은 낮은 편이나, 보다 사회성이 요구되는 운동이나 게임과 같은 영역에서는 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일'로서 '학업/ 진로결정'이라는 반응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현저하게 낮았다. 친구와 활동 내용 및 장소'로서 '학교'라고 응답한 경우는 적었으나, 'PC방/ 오락실'이라는 반응은 현저하게 많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사회성 효능감은 높으나 학업과 관련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낮으며, 학업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 효능감 하위 영역별 측정의 필요성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효능감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되며 영역특수적인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이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사회성 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각각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판별하는 심리특성 변인으로 그 역할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 중학생을 표집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1999)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학업 성적은 학업성취 효능감에 의해, 건전한 여가 활동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에 의해, 사소한 문제행동은 사회성 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즉 사회성 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사회성 효능감은 학교에서의 처벌경험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된 처벌경험은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재확인(Kim, Park, & Kim, 2004)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성 효능감이 일탈행동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맥락에 있다.

반면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여러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는데, 경로분석 결과들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매우 의미있는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Kim & Park, 2006, in press). 분석대상을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행동에 초점을 두어 폭력가해 집단, 폭력피해 집단, 폭력무경험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도, 모두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 즉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여 가해를 하는 청소년이든,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이든, 또는 이러한 폭력행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이든간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이 일관성있게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시사되듯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질적으로 다른 심리적인 역동을 하며 다른 행동들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영역특수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자아개념과 같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

론적 틀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해결 방안: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의 증대

일탈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2005)에 의하면, 2004년 소년범죄자 총 86,861명 중에서, 재범 죄자가 29,431명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년범죄자 3명 중에 1명은 재범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대검찰청 자료(문화관광부, 2004)에 의하면, 2003년도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총 104,158명 중에서 초범이 68,327명(65.6%) 전과범이 35,831명(34.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전과범 34.4%는 1범 15.4%, 2범 7.5%, 3범 이상이 11.5%로서, 2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일탈행동이 누적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범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탈행동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와 같은 성격보다는 일탈 자체가 하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가고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끊임없이 건강하지 못한 삶의 악순환 고리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김의철, 박영신, 홍천수, 이정권, 2005)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탈 청소년들이 재범을 반복한다는 것은, 도덕적 이탈 → 일탈행동 → 부정적 피드백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탈행동에 개입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



에 빠져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이 존재하고 있다. 동 서양의 연구들(곽금주, 1999; Goldstein & Conoley, 1997; Larson, 2004)에서 일탈행동 또는 학교폭력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들이 있어왔다. 실제로 일탈 청소년의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상철, 2001)하고 가정 학교 또한 사회가 순기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Park & Kim, 1999) 하다. 예컨대 일탈청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기능위주의 직업교육에만 치중하기 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최영신, 2003) 한다든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요원들의 확대 배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탈 청소년으로서의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을 경험과학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 연구의 제한 범위 내에서, 분석 결과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은 행동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특성에서 질적으로 다르며,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심리특성의 면에서 볼 때 보호관찰 청소년은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고 사회성 효능감이 낮다면, 일반 청소년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이 도덕적 이탈 정도가 높다고 해서, 이러한 도덕적 이탈을 감소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라는 하나, 이러한 방식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도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을 제시해 주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동일한 심리특성의 연속선상에서 양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기보다, 질적으로 다른 심리특성들로 변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컨대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학업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역동 과정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된 문화와 하위 문화가 전혀 다른 사이클을 그리며 각각 순환(Park & Kim, 2004)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하위 문화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주된 문화에서의 삶의 양식과 심리적 역동을 내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보다 해결지향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질적으로 다른 삶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생은 도덕적 이탈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특성에서나, 가출이나 학업성취와 같은 행동특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이 도덕적으로 더욱 이탈되어 있고 사회성 효능감은 높으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은 낮으며, 가출은 더 많이 하고 학업성적은 더 낮다. 이러한 결과는 일탈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Chung, Kwon, Lee, & Park, 1999; Park & Kim, 2003)과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탈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청소년 일탈 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다른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3)에서도 청소년 일탈행동이 환경특성으로서 가정환경(박영신, 2003; 박영신, 김의철, 2000)과 학교환경 및 개인특성으로서 심리 행동특성들과 독특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흔들리는 가정'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근원(박영신, 김의철, 2005a; 한기혜, 박영신, 2004)이며, 친구관계가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촉진자 역할(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을 하였다. 일탈 청소년들은 질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일탈적 삶의 양식을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탈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은 질적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성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김의철, 박영신, 2004)에서도 질적으로 다른 삶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주류문화의 틀 속에서 짜맞추려하기 보다,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하위문화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개방적 시각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과정에서의 조력자로서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 사회 기성 가치의 마음 밖 청소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열린 자세는 단지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보호관찰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든 일탈 청소년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나 교사나 사회 구성원들이 일탈 청소년들을 어떻게 꺼안아 나갈 수 있을 때, 일반 청소년들에게 모델이 되어 또래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

인 역동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적 개방성에 대한 훈련은, 세계화와 통합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소양이 될 것이다. 한편 연구의 맥락에서도 청소년 행동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과 개방적 자세에서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이순철, 2004)하다.

####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 다양성과 관련하여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글을 맺으려 한다. 한국 사회와 문화 맥락에서 일탈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최근 일탈 행동의 개념화와 연구 방법론,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권준모(1999)는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한국의 왕따 현상 연구의 방법론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광금주(1999)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4)은 한국의 일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토착심리를 탐구하기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전국의 중 고등학생과 부모를 표집하여 청소년 부적응 문제의 영역을 추출한 신현숙, 이경성과 이해경(2003)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토착적인 심리과정과 결부하여 설명(Park & Kim, 2004)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헌신적이거나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자녀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불신이 강할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해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형성하기 어렵고, 물론 죄송한 마음도 별로 없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적이지 않다고 자녀가 지각할 때, 자녀들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로부터 본인이 버려진 것 같이 지각하며, 이러한 절망적인 지각은 도덕적으로 이탈되는 심리에 쉽게 빠져들게 하는 것(박영신, 김의철, 2004b)으로 보인다. 즉 부모의 은혜를 갚고 기쁘게 해 드려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이탈된 심리는,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로 연결되고 일탈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자녀의 이러한 행동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며, 이러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피드백과 같은 순환 고리가 되어 계속되는 자녀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발견하며, 어떤 면에서는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양의 이론 틀과 준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안목(Kim & Park, 2004; Kim & Park, 2006b *in press*)을 기반으로 주체적 이론 틀의 정립이 요구된다(박영신, 김의철, 2004a).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및 지도 방향을 모색(박영신, 김의철, 2005b)함에 있어서도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된다. 문화와 토착심리(Kim & Park, 2004)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Kim, Park & Park, 1999)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이해(Kim, Park &

Kim, 2002; Park & Kim, 1999b)도 토착심리의 맥락 속에서 검토될 때, 문제의 본질이 명료히 드러나고, 나아가서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진, 전민정, 장지현 (2005).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 분석: 3 수준 다층분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45-176.
- 강승호, 민미자 (2002).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과 주도하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성격 특성과 감성지능 비교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40(2), 143-168.
-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 프로그램 (I):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05-122.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에 관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 권준모 (1999).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59-72.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a). 청소년 일탈행동 무경험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3(2), 201-219.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b).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2004년 제 4차 초청 학술세미나 자료집, 105-110.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4). 한국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체성과 삶의 질.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밖 청소년 이해와 개입 방향, 7-59.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문화심리학 총서 2.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김정민 (2004). 학교 내에서의 또래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 및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42(2), 567-589.
- 문화관광부 (2004). 2004 청소년 백서. <http://www.mct.go.kr>.
- 박영신 (2003).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2-213.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1b).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총서 제 5권.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5a). 한국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청소년의 지도 방안: 청소년 일탈행동과 인간관계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인천카운슬러협회 한국의 가족관계를 통해 본 청소년 지도 방안, 7-42.
- 박영신, 김의철 (2005b).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의 방향 모색.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인천교육, 제 32호, 55-6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

- 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사이버 경찰청 (2005). 2005년 경찰 백서. [www.police.go.kr/index.jsp?\\_page=2257](http://www.police.go.kr/index.jsp?_page=2257).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2003). 청소년 부적응 문제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평가: 요 인구조의 비교와 예측변인의 탐색.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41(4), 1-23.
- 이순철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 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1-10.
- 최영신 (2003). 소년원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41(2), 155-174.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5-166.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4).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신뢰,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3-154.
- 한기혜, 박영신. (2004).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3(1), 95-109.
- 한상철 (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원인 및 보호적 요소와 발달적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9(4), 291-312.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hung, K. S., Kwon, H. H., Lee, S. M., & Park, Y. S. (1999).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health, and delinquent behavior: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216. August 4-7, Academia Sinica, Taiwan.
- Goldstein, A. P. & Conoley, J. C. (1997). *School violence intervention: A practical handbook*.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Y. H., Park, Y. S., & Kim, U. (2002). School violence of Korea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Kim, Y. H., Park, Y. S., & Kim, U. (2004). Longitudinal analysis of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200.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Kim, U., & Bandura, A. (*in press*). Longitudinal analysis of delinquency of 6<sup>th</sup> 7<sup>th</sup> 9<sup>th</sup> and 11<sup>th</sup> grades.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 of applied psychology, vol 2* .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 *in press*).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Pajares, F., & Urdan, T.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 *in pres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
- Kim, U., Park, Y. S., & Park, D. H. (1999). The Korean indigenous psychology approac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8(4), 451-464.
- Larson, J. (2004). School violence prevention. Spielberger, C.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 355-36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 Oxford: Blackwell.
- Park, Y. S., & Kim, U. (1998). Relationship among attributional style,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al outcomes: Comparative analysis of primary, secondary, and university students and adolescents living in detention centers. Paper presented at the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21. August 9-14. San Francisco. USA.
- Park, Y. S., & Kim, U. (1999).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 *Education Journal*, 27(1), 91-120.
- Park, Y. S., & Kim, U. (1999).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 Korea: The role of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society.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10. August 4-7,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 Park, Y. S., & Kim, U. (2001).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Comparative analysis of victims, bullies, non-participants of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 237. July 10-13,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 Park, Y. S. & Kim, U. (2003).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Korea-Japan Seminar, p. 1-39, February, 21. Tokyo University, Tokyo, Japan.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Tak, S. Y., Park, Y. S., & Kim, U. (2004). Individu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n probatio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64.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2. 2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5. 9

Yang, K. M., Chung, H., & Kim, U. (2003).  
Effects of school violenc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of Korean adolescents: Comparison  
of bullies and victim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263-276.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K C I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files of adolescent  
on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specific focus on moral disengagement,  
self-efficacy, delinquency, and academic achievement

Youngshin Park      Uichol Kim      Sooyeon Tak  
Inha University

This article compares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files of adolescents on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253 adolescents on probation and 257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assessed moral disengagement and self-efficacy developed by Bandura (1995), delinquent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Adolescents on probation reported that they engaged in delinquent behavior due to the fault of others and they were angry for being forced to be on probation. They are not likely to take responsibility and morally disengage from their delinquent actions. When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s on probation are likely to report low self-efficacy, low academic grade, and less likely to feel proud of themselves. They are more likely to meet their friends in Internet and video game rooms and less likely to focus on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of ANCOVA indicate that adolescents on probation have higher scores on moral disengagement, social efficacy, but lower score on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They are more likely to run away from home and have lower academic grade.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 that running away from home, social efficacy and moral disengagement are predictive of adolescents on prob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re predictive of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Adolescents on probation, delinquency, moral disengagement,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